

# 大學에서의 敎員敎育을 생각한다



公州師大學長 朴 在 奎

## I

敎育의 問題를 言及함에 있어 敎員의 問題가 무엇보다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새삼스럽게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러나 유능한 敎員을 養成 供給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論議도 多樣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령 敎員은 어디서, 어떤 組織과 內容으로, 어떤 目標 밑에서 養成하며, 또한 양성하여야 하느냐 하는 問題들이 으레 提起되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敎員에게 필요한 能力과 資質이 무엇이며, 敎員이란 어떤 職業人인가 하는 敎師論을 媒介로 하여 넓게는 敎育論 一般과 聯關될 뿐 아니라, 그러한 資質과 能力은 어디서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制度論과도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養成된 敎員을 敎育實踐의 場으로서의 初等敎育과 中等敎育에 관련지어 본다면, 可謂 學校敎育 全般과도 밀접하게 結合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敎員養成의 目的, 制度, 內容, 方法 등에 관한 是非는 비단 師範敎育이라는 특수한 部分만의 問題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제기되는 問題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樣相을 띠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全般的인 問題들을 檢討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周邊에서 흔히 提起되었던 몇 가지 論點들을 反芻하면서 中等敎員 養成敎育에 대한 管見을 開陳코자 하는 것이다.

## II

現行 中等敎員의 養成은 3가지의 서로 다른 組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國立 및 私立의 師範大學이고, 둘째 一般 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敎職科이며, 셋째 實業系 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實業系의 正規 敎員養成課程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中等敎員의 양성은 ① 4年制 大學課程에서 ② 師範大學 以外的 一般 大學에도 길을 열어 주는 이른바 「開放制」의 原則에 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現行制度下에서 國立師大와 私立師大의 敎師養成의 比率 혹은 比重 問題, 養成機關의 敎育年限, 資格證 問題 등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看過할 수 없는 것은 첫째로 中等敎員 養成機關의 存在樣式에 관한 논쟁이

었다.

그것은 먼저 1960年代에 師大無用論이 擡頭되었던 사실을 看過할 수 없다. 당시 내세웠던 理由 중 에서 注目을 끄는 것은 專攻科目에 대한 實力の 低下를 指摘하고, 이른바「師範型」이라 불리는 틀에 박힌 敎員을 양성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풍요로운 人間性을 갖는 國民의 敎育은 閉鎖的이 아닌 자유스런 雰圍氣에서, 「人間的 폭이 넓고 氣概가 있는 敎師」가 擔當해야 한다는 命題에 대하여 누구도 異議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師範敎育에 대한 그릇된 固定觀念을 憂慮하는 것이다. 가령 敎師像만 해도 그렇다. 政治的 價値나 宗教的 價値에 대한 中立性을 내세우고, 낡은 德目이나 나열하여 「一定한 價値」의 信奉者요 傳達者로 投影되었다든지, 혹은 「성실하지만 世上 物情을 모르며 視野가 좁은」 師範型을 오늘날의 師範敎育型으로 까지 類推하려는데 그 誤謬가 있는 것이다. 물론 1960年代의 論爭의 背後에는 다분히 功利的인 配慮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오늘날의 開放制度下에서 그것은 이미 說得力을 갖기는 어렵다.

敎員은 마땅히 敎職者로서의 使命感이나 信念, 그리고 愛國愛族의 精神과 같은 일종의 精神主義가 要求되는데, 이런 것이 자칫 師範型이라 曲解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師範大學의 獨自의 性格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그것이 達成될 수 있느냐 등에 대하여는 今後에도 끊임없이 內在的 批判을 통하여 개선해 나아가야만 될 것임은 당연하다.

둘째로 敎育課程의 問題이다. 敎育課程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問題는 中等敎員의 資質을 어디에 重點을 두고 어떤 內容과 方法으로 涵養할 것이냐에 직결되므로 가장 中核的인 論議라 할 수 있다.

原則論부터 말한다면 敎員養成의 本旨가 敎員의 통일된 人格을 함양함과 동시에 豊富한 敎職敎養을 쌓는 데 있다면, 마땅히 敎育的 信念이 있고, 一般的 敎養은 물론 學問的 敎養과 敎職敎養을 두루 갖춘 全人的 敎員을 養成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현재 師範大學의 敎育課程은 보통 一般敎養, 專攻 및 敎職의 二分野로 構成되고 있다. 敎養敎育의 目標 중의 하나는 高度의 思考力과 아울러 探究를 사랑하며 自主的인 研究를 계속하려는 態度를 確立시켜 주는 데 있다. 따라서 專門敎育을 위하여 얼마나 有用한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우기 國民의 知的 形成에 參與해야 할 專門職으로서의 敎員에게 있어서 敎養敎育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친 일은 아니다.

한편 敎科에 관한 專門敎育에 있어서는 學問의 領域에 관해서 研究者가 될 수 있도록 敎育이 追求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데 必要」한 專門敎育이 아니라 장래 敎育實踐을 통해서 꾸준히 自己自身을 開發하고 學問 그 自體에 관해서도 敎師로서 自己發展이 가능하도록 學問的, 基礎的인 敎養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敎育에 관한 諸 科學, 특히 學生들의 成長 發達과 敎育實踐에 관한 科學的 知識이 綜合的으로 추구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敎科敎育의 重要性이 세상 強調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敎科敎育의 研究」는 학문을 學生들의 成長 發達에 따라 習得시키는 敎育的 實踐과 學習主體로서의 學生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過程의 構造와 論理를 追求하는 것이다. 이것은 敎材에 관한 해박한 知識과 人間의 成長 發達에 관한 洞察을 결합시킨 敎授-學習의 理論으로서 師範大學에서는 꼭 실천해야 할 獨自的 領域이라 믿는다. 敎育課程을 언급할 때는 이 밖에도 全敎育課程 속에서 三分野의 按配問題, 專攻敎育과 敎職敎育의 比重, 그 構成內容 등 여러 가지 提案들이 있음을 附言하여 둔다.

세째로 現職敎員 敎育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유능한 敎師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要件의 하나이다. 現行制度는 一般研修를 병행하고 있지만 資格研修가 그 大宗을 이루고 있다. 즉 一定期間인 260時間의 研修를 이수한 者에게는 上位 資格證을 附與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래 現職敎員 敎育은 敎員의 自己研修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敎員 自身이 再學習의 요구에 副應코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今後 運營面에서는 많은 改善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다.

가령 年中 가장 무더운 夏季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現職敎員 敎育이 과연 效率의이나 하는 點, 그 밖에도 敎育內容과 方法 등과 함께 敎授들의 時間負擔, 豫算, 施設 등 全般的인 檢討가 기대된다. 政府의 다른 部處의 公務員 再敎育에 비한다면 師範大學 附設의 中等敎員研修院은 너무 빈약하고 소홀한 點이 많지 않은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師範大學 附設 中等敎員研修院에도 다른 部와 같이 常設研修院 못지 않은 專任敎授와 專任研究員 그리고 專任職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름방학 등을 한번도 自由로운 研究나 休養을 누리지 못하는 師範大學 敎授들에게 過勞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이들은 附設 中等敎員研修院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研修에 뚜렷한 使命과 目標을 가지고 效果의인 責任을 完遂할 수 있는 좋은 點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年中 講座를 開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現行制度下에서도 現職敎師의 研修結果를 評價, 學點化하여 進學과 동등한 資格을 인정하는 方案도 此際에 고려해 볼 만하다.

네째로 指摘하고 싶은 것은 敎育實習에 관해서다. 敎育實習은 卒業後 敎員으로서의 技術的 豫備 訓練만을 目標로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안다.

어디까지나 大學의 敎育計劃의 일환으로서 大學에 있어서 敎育研究의 理論과 實踐의 「統一의 場」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學問과 敎育을 결합하는 實踐의 場일 뿐 아니라, 敎育實踐을 둘러싼 여러 條件, 즉 敎科敎育 혹은 生活指導를 實踐함에 있어서 具體的 現實을 인식하고 敎育研究의 內實을 기하기 위한 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附屬 中·高等學校의 役割은 참으로 중요하다.

授業條件, 施設 등 環境造成에 대해서는 언제나 關心을 가져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實習內容이 자칫 소홀히 되고 學點 取得을 위한 방편으로 形式化된다면 實習 그 自體의 名分조차 喪失될 것은 뻔한 일이다.

### III

끝으로 師範大學의 女性化 傾向을 指摘하고 싶다.

敎育의 質은 敎員의 質에 비례함은 自明하지만 능력 있는 훌륭한 敎員을 確保하는 길은, 敎職이 魅力있는 職業이 되고 많은 志願者를 끌어들이 수 있는 條件이 確立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요즘 價値觀의 變化에 따른 拜金思想의 팽배는 敎職에 대한 매력을 相對的으로 減少시켰으며, 한때 離職現象의 急増은 커다란 社會問題가 되기도 했었다. 이는 우리 나라가 高度經濟成長을 이루고 各企業體가 유리한 條件으로 우수한 人力을 요구함에 따라 敎職에 대한 社會的 評價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必然的 歸結이었다.

유능하고 의욕에 찬 젊은 學生을 敎職에 誘致하고 우수한 現職敎員을 오래 敎職에 머물게 하려면 敎師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勤務條件을 改善하는 일이 先決問題이다. 그리고 理想的 敎科 및 生活指導는 男·女敎員의 比率에 있어서 均衡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本 大學의 경우 1980年 이래 매년 女學生의 入學者 數가 증가되어, 1983年 현재는 55.9%로 全體 入學者數의 절반을 上廻하고 있다. 그리하여 本 大學에서는 83年度부터 入試銓衡에 있어서 各科의 募集定員 中 男·女學生의 志願 上限線을 70% 下限線을 30%로 調定하여 놓고도 이런 趨勢이고 보면, 中等敎員의 女性化傾向은 目前에 이르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리라.

물론 職業選擇의 自由가 보장되고 男女의 機會均等이 보장되는 우리 社會에서 결코 타할 일은 아니지만 敎職을 男學生들이 忌避하는 理由도 反省해야 되겠고, 이런 불균형(unbalance) 현상이 持續된다면 潛在的 敎育課程面에서 볼 때 中等學校에 있어서 均衡 있는 學習指導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데 問題의 深刻性이 內包되고 있는 것이다. \*